광주일보

Weekend

1 제17494호 2판
2006년 7월 8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소영에 묻혔던 '감춰진 보석'

'아파트'로 영화 데뷔 **장 희 진**

학대받는 장애여성 역 맡아
영화 개봉하자 열연 돋보여

장희진의 존재는 늘 고소영에게 묻혔다. 영화 제작발표회 때부터 시사회를 열기 직전까지. 그러나 시사회를 통해 영화가 공개된 후 장희진은 출연배우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포영화 '아파트'(감독 안병기, 제작 토일렛 픽쳐스 · 영화세상)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현실적인 공간인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다룬다.

영화에 첫 출연하는 장희진은 '토지'에서 봉순의 딸 양현으로 등장해 극 종반부를 이끌었고, 이후 '건빵선생과 별사탕'에 출연하며 CF 스타에서 연기자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다.

영화 도전은 정경호 · 이태성과 주연을 맡은 '폭력써클'로 시작했지만 이 영화 촬영 도중 시작한 '아파트'가 먼저 개봉하는 바람에 바깥에 드러나는 데뷔작은 '아파트'가 됐다.

여기서 그는 하반신 불구인 유현 역을 맡았다. 이런 캐릭터인 까닭에 장희진은 영화 내내 휠체어를 타고 있어야 하며, 바닥을 기어다니기도 했다.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연기의 폭이 적어 오히려 더 풍부한 표정 연기가 숙제였을 터. 신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주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전 영화 도입부 잠깐 카메오로 등장하는 유민 씨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 대본 연습을 하러 간 날까지 유현 역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감독님이 저보고 대신 대본을 읽어달라고 하셨고, 그 후 유현 역을 맡게 된 거죠."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감독님도 반신반의하셨던 것 같다. 이미지가 유현 역에 맞기는 한데 연기력이 미지수라고 생각해 테스트를 해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더욱 더 유현을 잘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는 새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촬영장에서도 늘 휠체어를 타고 지냈고, 밤에는 다리를 묶고 잠을 자기도 했다. 다리를 묶은 채 기어다니는 건 기본. 이런 육체적인 노력과 함께 유현의 슬픈 감정을 담기 위해 애썼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학대를 받는 슬픈 상황이잖아요. 유현이 당하는 아픔이 시나리오상에서 잘 느껴졌기 때문에 연기할 때 유현의 생각 자체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안병기 감독이 촬영 때마다 '네가 잘해야 영화가 산다'는 말을 해 중압감을 느꼈다. 현장에서 힘들어 할 때마다 선배 고소영이 큰 힘이 돼줬다. 대사를 맞춰주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

"촬영했던 장면 중 꽤 편집돼 잘려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관객에게 상황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그렇지만 '아파트'는 제게 첫 영화라는, 큰 의미가 있으니 잘됐으면 좋겠다"는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영화 '폭력써클' 촬영과 '뮤직뱅크' 녹화를 병행하며 찍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쉬움도 크지만 일단 영화배우로서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KBS 2TV 수목극 '투명인간 최장수' 역 **유 오 성**

"휴머니즘·인생 담긴 작품 욕심났죠"

"제 아이는 일하러 나가는 저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해요. '다녀오세요'가 아니죠. 그런데 똑같은 대사가 드라마에도 나와서 놀랐어요. 저도 평소 아이에게 남다르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극중 캐릭터는 실제 유오성과 70~80%는 닮았죠."

유오성(40)은 거침 없는 배우다. 까다로운 질문에도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게 답한다. 영화 '친구', 드라마 '장길산'에서 보여준 이미지와 겹쳐진다.

그런 유오성이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잦아드는 느낌이다. 직업 특성상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많다고 한다.

유오성은 그의 이런 마음과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KBS 2TV 수목극 '투명인간 최장수'(극본 박계옥, 연출 정해룡)역으로 열연중이다.

유오성은 강력반 형사 최장수 역을 맡았다. 단순하고 무식하다. 직장생활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 그러다가 아내(채시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다.

그는 2000년 드라마 '뜨거운 것이 좋아' 이후 TV에서 현대극은 처음이다. 2004년 SBS 사극 '장길산' 이후 첫 드라마 출연이다.

"시놉시스에 휴머니즘과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이전에도 저는 늘 휴머니즘과 리얼리즘을 기준으로 작품을 골랐죠."

오랜만에 출연하는 드라마인 만큼 욕심도 남다르다. 최근 난이도 높은 액션신을 대역 없이 소화하기도 했다.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면 배우가 직접 연기하는 게 맞죠. 액션도 몸짓이나 외양보다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시청자에게 주는 것이 대역의 화려함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시청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흥행에 신경 써 본 적이 없다"며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 하느냐 아니냐는 등 스스로 절대평가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아파트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고소영 주연의 공포물. 9시 56분이 되면 불이 꺼지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음을 맞이한다.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극장, 밀리오레, 제일, 콜롬(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캐리비안의 해적 : 망자의 함 악령에게 영혼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블랙펄의 주인 '캡틴 잭 스패로우'. 구원을 위해 세상 끝에 존재한다는 '망자의 함'을 찾아 나선다.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파이스토리 한미 합작애니메이션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바다의 제왕 상어 '트로이'에 대항하는 '파이'의 모습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롯데(첨단·광주), 제일,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아랑 '아랑 전설'을 원작으로, 송윤아가 형사로 출연해 잇따르는 의문의 죽음을 추적한다.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목포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슈퍼맨 리턴즈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슈퍼맨의 초인적인 능력 외에도 멜로에 초점을 맞췄다.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극장, 밀리오레,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비열한 거리 '꽃미남' 조인성이 삼류조폭 조직의 2인자로 등장해 비열한 세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엑스맨 최후의 전쟁 다양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들이 등장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존재의 의미를 되물었던 '엑스맨' 세번째 시리즈다.	롯데(첨단), 무등,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5X2 독특한 작품세계로 유명한 프랑수아 오종감독이 평범한 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진지하게 그려냈다.	광주극장
카포티 미국 역사상 가장 부러움을 받는 재능있는 작가 트루먼 카포티가 희대의 살인마를 인터뷰하면서 써내려간 걸작 '인 콜드 블러드'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 영화다.	광주극장
꿈꾸는 카메라 사진 작가 출신인 자나 브리스키 감독이 캘커타 사창가의 아이들과 2년간 동고동락 하며 아이들의 성장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광주극장